

선은 생명이다.

엄정순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다. 또한 보이는 것 이면을 찾아보는 것도 가슴 설레는 일이다. 그 안에 있을 것 같은 무언가에 대해서도 나는 늘 궁금하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임이 있고 정지되어 보이는 것들조차도 움직임을 담고 있다. 움직임, 그것은 생명이다. 이 움직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를 넘나드는 나의 작업에서, 곧 "선"이다.

움직임은 속도를 동반한다. 대상에 내재된 속도, 카메라의 속도, 작가의 드로잉 속도 등을 통해 나는 시간을 펼친다. 손, 발걸음, 풍경, 혹은 거리의 낙서이건, 보이는 대상에 속도를 얹으면 그들은 스스로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 그 속에서 외형은 해체되어 움직이면서 외형의 틀 속에 숨겨져 있던 모습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난다. 마치 주름이 퍼지듯이. 나에게서 선은 이런 살아있는 움직임들의 집합이며 사물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는 더듬이다.

이 전시에서 처음 소개하는 Graffiti 시리즈는 세계 대부분 도시의 벽들에 그려있는 Graffiti 에서 느낀 강렬한 정서적 교감에서 시작된 작업이다. 이 교감은 graffiti에 대한 기존의 많은 사회학적, 미학적 담론과 전형적인 이미지를 넘어서 그 내면으로 들어가게 해주었다. 나의 카메라는 그들 앞에서 빠른 속도로 마치 그래피티를 하듯 움직였다. 그 결과 어지럽고,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그래피티 외형에 가려 모호해서 보이지 않았던, 간결하고 울림이 있는 선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는 이러한 재창조의 작업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풍경 속에 휘갈겨 있는 모호한 그러나 절실한 움직임에 담겨 있는 본연의 정서와 미를 찾아보고 싶었다